

식민지 공업화와 유업률 감소* —1930·1940년 국세조사의 검증과 해방 후와의 비교—

선 재 원**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는 최근의 수량적 분석에 의해 생산액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식민지 공업화와 자산, 그리고 소득, 소비 및 신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평가기준인 고용기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조사의 精度가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국세조사가 1930년에 비해 1940년에 총유업자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조사 및 집계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실로 인식하여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1930년대 총유업자 감소에 관한 원인을 충분히 논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감소의 사실을 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세조사의 결과를 당시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로 받아들여 식민지 공업화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공업화와 고용기회와의 관계에 대해 해방 후 경제재건기인 1950년대와 비교한 분석결과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식민지 공업화, 국세조사, 유업률, 고용기회, 1930년대, 1950년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3, J1

* 이 연구는 200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KRF-2007-322-B00010).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경제사 워크숍에서 이철희 교수의 코멘트, 부산경제사연구회 및 산업사연구회 합동연구회에서 김종환 교수의 논평을 비롯한 참가자들의 코멘트,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에 의해 발전적으로 수정되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E-mail: sun@ptu.ac.kr

I. 머리말

식민지기 조선의 공업화가 생산액 증가라는 측면에서 1930년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사실은 최근의 수량적 분석에 의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정착되었다(溝口敏行·梅村又次編 1988; 김낙년 편 2006). 이제부터는 이러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식민지 공업화가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사회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에 식민지 공업화와 자산액 증가 및 분포와의 관계(허수열 2009), 식민지 공업화와 소득(차명수 2006) 및 소비(주익종 2006)와 신장(최성진 2006) 등을 기준으로 한 생활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와 그 결과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전에 그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인인 고용문제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논의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가장 조사 精度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세조사의 결과가 1930년에 비해 1940년에 총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유업자가 감소하여 유업률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존 연구에서 조사 精度가 높아진 결과(허수열 1992) 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김낙년 2003: 192)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김낙년(2010)은 본격적인 식민지기 유업자 추계를 시도하였다. 이 논문의 요지는 호구조사와 국세조사를 비교하여 추계한 결과 1930년 원데이터의 유업자수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1940년 원데이터의 유업자수는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자수가 줄어드는 수수께끼 같은 미해결 분석과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추계를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호구조사와 국세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1930년과 1940년 국세조사의 기준이 변하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없다. 즉, 본 논문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30년 및 1940년 두 해 모두 편차 없이 비교적 실태에 가깝게 조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국세조사 종사원의 신고서 기입 주의사항’(『官

報』1930년 5월 17일; 1940년 6월 20일)과 ‘기업시 주의할 점’(『國勢調査』1940년판 부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추계의 결과에 기준하여 역으로 유업자의 기준이 엄격하게 변하여 원데이터에서 유업자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김낙년(2010)은 1940년 국세조사 유업자 조사결과를 과소평가로 인식하는 구체적인 근거로 ‘직물업’ 유업자 감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즉, 김낙년(2010)은 ‘표 3’에서 국세조사의 조선인 직업별 유업자수를 1930년 조사결과와 1930년 조사기준으로 재편한 1940년 조사결과를 비교한 뒤 직물업 중 마직물의 사례를 들어 종사자(업주 및 기직공)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소의 이유를 1930년 조사결과에는 유업자 기준이 느슨하여 부업이나 內職의 성격이 강한 마직물 종사자가 포함되었고, 1940년 조사결과에는 유업자 기준이 엄격하여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낙년 2010: 149).

그렇지만 국세조사와 전혀 다른 통계계열인 ‘공업제조호수 통계’를 이용한 추계에서 가내공업제조호수가 격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마직물 종사자의 격감을 실태에 반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직물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가내공업 형태로 생산되어 왔지만 공장생산으로 상승하지 못한 채 1930년대에 걸쳐 상대적인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김낙년 2003: 184)는 본인의 기존 주장과 상반된 평가이다. 본 논문은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장제의 급격한 확대과정에서 직물업 생산이 공장생산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가내공업제조호수 자체는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더라도, 부업이나 內職형태의 가내공업 종사자가 감소되었고 일정 정도의 종사자는 공장노동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본 논문의 인식은 “1910년대 초의 20%에 불과하던 공장생산비율이 1930년대 말에 80%로 높아지게” 되었고, “방직공업에서 가장 빠르게 공장제가 확산되었다”는 기존 연구(박기주 2006a: 102-5)의 인식과도 일치하고 있다.

본 논문은 1930년대 총유업자 감소에 관한 원인을 충분히 논증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감소 및 유업을 저하의 사실을 부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세조사의 결과를 당시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로 받아들여 식민지 공업화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 공업화와 관련된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박기주 2006a; Kim, Duol and Ki Joo Park 2008)와 1980년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100여 개국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Goldin 1995)와 정합적이다. 특히, Goldin(1995)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경제발전과정 초기에는 가내공업제품의 상대가격 하락 및 농업에서의 여성 노동력 수요감소와 더불어 가족의 암묵적인 여성 노동력 임금 미지불 구매에 의해 여성 노동참가율이 하락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본 논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공업화와 고용기회와의 관계에 대해 해방 후 경제재건기인 1950년대와 비교한 분석결과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총유업자

1. 고용 없는 성장

먼저 1930년과 비교한 1940년 총유업자의 감소실태를 양상이 다른 일본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표 1 참조). 직업별 인구에 관한 중분류 집계자료는 1930년, 1940년 모두 현존한다. 한편, 산업별 인구에 관해서는 1940년은 중분류 집계자료가 남아 있지만, 1930년은 대분류 합산치만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별 인구는 두 해의 집계결과 발표양식이 다르므로 비교하기 위하여 중분류 결과를 재분류하여 집계하였다(부표 1 참조). 또한 1940년 조사의 경우 경영자, 사무자, 기술자를 독립적으로 집계하였다. 이 가운데 기술자에 대해서는 각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남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자(남 1,976백 명 81.3%, 여 141백 명 22.2%)와 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과학연구원'(남 52명 2.1%, 여 485백 명 76.4%)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나눌 수 없어 그대로 두었다. 다만 사무자는 '주로 판매구매 등 사무적 방면에 종사하는 자, 예를 들면 장부, 회계에 해당하는 상점부, 회사의 판매계원 등'이기에 상업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고, 이과학연구원은 '技士, 技手와 같은 기술자라 하더라도 단지 연구 또는 시험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공학연구원 등과 같이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공업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다.

1940년 직업별 총유업자수는 1930년 총유업자수의 5.6%에 해당하는 54만 9,000명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남자유업자 16만 3,000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71만 3,000명의 여자유업자수가 감소한 결과이다. 남자유업자는 농수산업, 상업에서 각각 약 49만 명, 3만 7,000명 감소하였고, 광업·공업에서 각각 6만

표 1

일본과 비교한 1930년·1940년 식민지기 조선의 취업구조

(단위: 100명, %)

	조선								일본			
	산업별 계		직업별 계		남		여		남		여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경영/사무/기술자						2,431		634		20,642		4,833
농수	77,863	68,207	77,872	67,520	51,434	46,536	26,438	20,984	82,441	70,788	64,425	72,875
		-9,656		-10,352		-4,898		-5,454		-11,653		8,450
광업	342	1,765	341	1,018	334	972	7	46	2,101	3,257	410	421
		1,423		677		638		39		1,156		11
공업	5,858	4,950	5,857	4,322	3,040	3,773	2,817	550	42,692	53,360	14,303	18,295
		-908		-1,535		733		-2,267		10,668		3,992
상업	5,621	6,009	5,621	4,597	3,451	3,080	2,170	1,517	30,140	19,646	14,642	14,787
		388		-1,024		-371		-653		-10,494		145
교통업	1,075	1,522	1,076	1,501	1,050	1,451	26	50	10,286	10,145	790	1,099
		446		425		401		24		-141		309
공무/자유	1,827	2,393	1,620	1,597	1,430	1,422	190	175	14,490	9,233	3,524	4,798
		566		-23		-8		-15		-5,257		1,274
가사업	1,209	1,728	1,209	1,683	290	402	919	1,281	842	367	6,971	6,685
		519		474		112		362		-475		-286
기타	3,861	5,393	3,861	6,659	3,194	5,789	667	870	4,883	9,858	827	3,736
		1,532		2,798		2,595		203		4,975		2,909
유업자 계	97,655	91,965	97,457	91,963	64,223	65,856	33,234	26,107	187,875	197,296	105,892	127,529
		-5,690		-5,494		1,633		-7,127		9,421		21,637
무업자	112,918	150,583	112,929	150,583	43,207	56,275	69,722	94,308	133,619	151,446	214,704	237,927
		37,665		37,654		13,068		24,586		17,827		23,223
군인/군속			206		206				2,428	16,918		27
			-		-206		-206		-		14,490	27
합계	210,573	242,548	210,592	242,546	107,636	122,131	102,956	120,415	323,922	365,660	320,596	365,483
		31,975		31,954		14,495		17,459		41,738		44,887

주: 본문 참조.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內閣統計局,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4,000명, 7만 3,000명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유업자의 경우에는 양상이 달랐다. 농수산업·상업에서 각각 54만 5,000명, 6만 5,000명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업에서도 22만 7,000명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여자총인구 중 여자무업자 비율이 1930년 67.7%에서 1940년에는 78.3%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기 조선의 총유업자수 추이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조사된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농수산업의 남자유업자는 감소했지만 여자유업자는 그것을 대체하여 증가하였고, 공업부문 남자 및 여자 유업자 모두가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교는 일본이 조선보다 공업화가 진전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급격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는 1930년대에 유업자의 절대수가 감소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은 이러한 현상이 1930년대의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시기에도 발생한 현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방 후의 시기와 비교하기로 한다.

2. 해방 후와의 비교

식민지기의 유업자수를 해방 후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두 시기의 조사방법이 다른 점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기와 같이 유업자를 파악하는 방법을 유업자접근법(gainful worker approach)이라 하고, 해방 후와 같이 취업자 및 실업자를 동시에 파악하는 방법을 노동력접근법(labor force approach)이라 한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이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한 1920년 이래 1925년에 처음 적용되었고, 해방 후의 노동력접근법은 1960년 이후 채택되었다(권태환·김두섭 2002: 3-20). 그렇다면 유업자접근법에 의한 ‘유업자’와 노동력접근법에 의한 ‘취업자’를 연속적으로 파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미국은 1870년 이래 1930년까지 유업자접근법을 채택하였고, 1940년 이후 ILO 및 UN인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319).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은 1930년 14세 이상 인구 중의 노동력(labor force)을 추정한 결과 유업자수(gainful workers)보다 1,191천 명(2.5%) 적은 47,404천 명으로 양자 간에 큰 오차가 없음을 밝혔다(Durand 1948: 197). 한편, 일본은 1947년 이후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였는데 ‘유업자’와 ‘취업자’는 연구자에 의해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一橋大學經濟研究所編 1961: 39; 總務省統計局統計研修所). 또한 주지하다시피 국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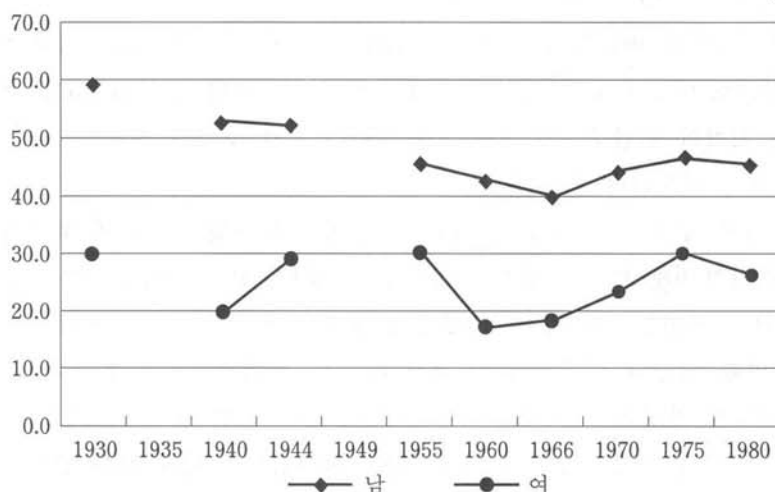
조사 및 인구센서스는 가장 조사범위가 넓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1944년-1955년의 것이 연령보고방법의 변화, 전쟁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시기의 조사에 비교하여 오류의 정도가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태환·김두섭 2002: 242-5). 이에 식민지기의 유업자수와 해방 후의 취업자수의 추이를 연속적으로 파악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된다.¹⁾

식민지기와 해방 후를 연결하기 위해 식민지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에 속해 있는 남한지역 9개 도, 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²⁾지역의 조선인을 산출하였다³⁾(부표 2 참조).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추이는 생산가능연령 이상의 인구에 대한 유업자수 및 취업자수의 비율변화이겠지만, 각 조사연도별 생산가능연령이 다르므로 총인구에 대한 유업자수 및 취업자수의 비율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⁴⁾ 이와 같은 방식의 고찰은 이미 金哲(1965: 128-9)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해방 후의 총인구에 대한 취업자수비율이 식민지기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의 하나로서 식민지기의 조사결

- 1) 그렇지만 유업인구와 취업인구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유업인구란 ‘평소 어떠한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고, 이것을 총인구에서 뺀 수치가 무업인구, 또한 무업인구 중 ‘취업의 능력과 의사를 가지면서도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를 실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업인구란 ‘조사기간(1주간) 중에 수입에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했던 자(종업자)와 ‘종업의 체제에 있으면서도 쉬고 있는 자’의 합계로 정의되고, ‘조사기간 중 조금이라도 수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완전)실업자로 정의된다(一橋大學經濟研究所編 1961: 39).
-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식민지기의 제주도는 전남지역의 통계에 합산되었다.
- 3)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연결방법에 대해 미조구치 도시유키(溝口敏行)는, 첫째 영역의 상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연결하는 방법, 둘째 도별 통계를 이용하여 해방 전의 수치를 현재 한국의 영역에 맞추는 방법, 셋째 북한의 해방 후 계열을 추계하여 한국과 합계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溝口敏行 1996: 3-4). 한편, 미조구치는 국민경제 계산을 추정할 때 ‘경기도는 수정을 하지 않고 강원도의 60%를 남한의 수치로 간주’하였다(溝口敏行 1999: 5). 본 논문에서는 노동력에 관하여 도별 통계보다 상세한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는 자료의 제약과 농업(박섭 2001: 40-3)과는 달리,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에는 공업시설이 희박했다고 예상되므로 두 번째 방법을 택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보다 치밀한 남북 분할을 시도한 김낙년(2008)을 참조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는 반영하지 못하였다.
- 4) 식민지기 국제조사는 유업자접근법에 기초하였기에 실업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932년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실업조사를 분석한 허수열의 추계를 이용할 수 있다(허수열 1993). 당시 조사의 실업 개념은 ‘취업능력 및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로 정의되어 당시 일본 국내의 개념과 같았다. 그러나 조사범위를 급료생활자 및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현재의 조사범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식민지기의 실업추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던 1955년의 자료를 현재의 분류체계로 조정하고 무업자를 ‘실망실업자’로 간주하여 체감실업률을 13.0%로 제시하고 있는 최근 연구(김종환·박섭·박영구 2006: 37-40)가 참고할만하다.

그림 1 남한지역 총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의 변화

(단위: %)



자료: 부표 2 참조.

과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조사기준이 식민지기의 국세조사에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는 1960년의 취업자수 비율이 1955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의 하나로써, 1960년의 조사시기가 농한기인 12월 1일에 실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 또한 남자유업자수 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여자취업자수비율이 1966년에도 1955년 수준에 가깝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추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부표 2의 식민지기의 유업자비율(C/B)과 해방 후의 취업자비율(F/B)의 비교를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해방 후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중반까지 남자취업자수비율이 계속하여 하락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새로운 공업화가 시작되는 시기인 1950년 후반에 여자취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식민지기의 공업화 시기였던 1930년대에 여자유업률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이 시기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Ⅲ. 공업 유업자

1. 공장종사자 및 방직공업 여자종사자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급격한 공업화 시기인 1930년대에 공업 유업자의 감소(약 15만 4,000명)라는 기묘한 현상은 여자 공업 유업자의 대폭적인 감소

표 2 일본과 비교한 조선 공업 유업자수 및 공장종사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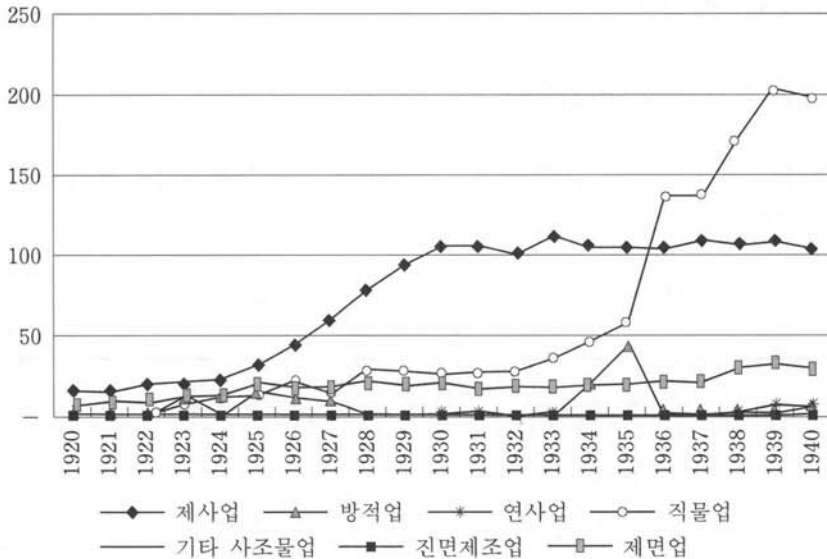
(단위: 100명)

	조선				일본	
	유업자		공장종사자		유업자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방직/피복/장진구	451	303	53	139	7,521	5,752
	2,092	381	158	377	11,067	10,935
금속/기계	371	774	86	530	7,409	18,134
	6	8	1	18	224	1,177
요업	165	146	62	155	1,412	1,266
	24	9	4	20	282	395
화학	111	248	118	661	1,023	2,480
	32	35	54	198	253	918
목제품	475	369	37	147	6,360	5,445
	518	18	1	7	673	873
종이/인쇄	129	137	51	80	2,276	1,875
	9	6	1	4	376	536
식료/기호	352	323	290	307	3,605	4,970
	130	78	72	111	1,081	2,562
기타	139	293	26	110	3,120	3,952
	4	9	8	85	312	785
계	3,040	3,773	724	2,129	42,692	53,360
	2,817	550	300	820	13,303	18,295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內閣統計局,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그림 2 방직공업 공장 여자종사자수의 변화

(단위: 100명)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판.

(약 22만 7,000명)로 인해 발생한 결과였다(표 1 참조). 이러한 특징은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표 2 참조). 일본의 남자 공업 유업자 및 여자 공업 유업자는 각각 25.0%, 27.9%로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의 남자 공업 유업자는 일본 남자 공업 유업자와 비슷하게 24.1% 증가했지만, 여자의 경우는 -80.5%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930년 현재 가장 많은 여자 공업 유업자부문이었던 방직/피복/장신구 부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약 82%(17만 1,000명) 감소하였고, 두 번째 부문이었던 목제품에서도 약 97%(5만 명) 감소하였다. 한편, 경공업부문인 방직/피복/장신구 부문의 남자유업자는 일본과 조선 모두 감소하고, 중공업부문인 금속/기계, 화학 부문은 두 지역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유업자 중에서 공장종사자수의 경우는 각 부분에서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1930년대에 공장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내공업 생산이 공장생산에 흡수된 결과라고 판단된다.⁵⁾ 공장종사자를 직원(사무종사자+기술종사자), 직공, 기타 종업자의 합계로 파악할 때 '기타 종업자'에 대한

5) 1930년대 후반의 가내공업부문의 축소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되어 왔다(허수열 1992; 장지용 1999; 김낙년 2003).

실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⁶⁾ 가장 많은 유업자수가 감소한 방직/피복/장신구 부문에서도 공장종사자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방직부문의 공장 여자종사자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직물업 공장 여자종사자수가 193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 공업부문 유업자의 감소는 공장제가 확대되어 중공업 남자유업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공업부문 가내공업의 남자유업자와 전 산업부문 가내공업의 여자유업자가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해방 후의 경제재건기에도 나타났을까? 다음은 해방 후의 경제재건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해방 후와의 비교

해방 전후에 걸쳐 공업부문 종사자수의 변화가 일관되게 확인가능한 통계계열은 '사업체조사통계'가 유일하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적지 않지만⁷⁾ 유사한 체계로 조사된 통계계열로 현존하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부표 3 참조). 본 논문에서는 1930년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5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현재의 조사분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자료 3, 5, 6, 7에 대해 검토한다.⁸⁾ 다만 이 계열의 조사가 국·공립학교, 국·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기관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력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한지역 사업체종사자(부표 4 참조)와 남한지역 사업체 중 제조업 종사자(부표 5 참조)⁹⁾의 1943(1)은 소분류의 수치를 1955년 이후의 분류기준에 따라 재

6) 공장종사자에 대한 기존 추계(박기주 2006a)는 이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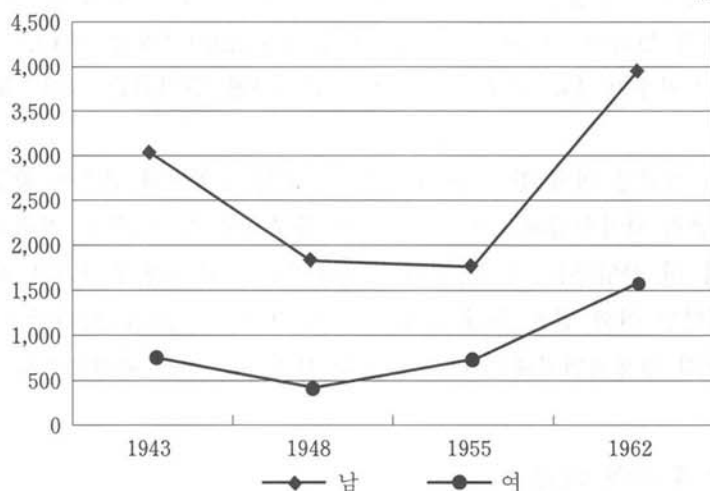
7) 이 점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1985)과 이대근 외 편(1990)을 참조할 것.

8) 식민지기 일본 국내의 사업체 고용자의 체계적인 조사는 1924년부터 시작되어(內閣統計局 1924), 1936년까지는 3년 간격으로 공표된 뒤 2년 뒤인 1938년에도 공표된다. 이 조사체계는 축소되어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부표 4의 자료 2). 한편, 전쟁이 본격화된 1941년에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동원의 목적하에 새롭게 편성된 조사체계는 일본 국내와 식민지 조선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內閣統計局 1941; 부표 4의 자료 3).

9) 제조업 분류는 1970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기준하여 식민지기의 분류를 재구성한 박기주(2006b: 98)를 따랐다.

그림 3 남한지역 사업체 종사자수의 변화(상시 5인 이상)

(단위: 100명)



자료: 부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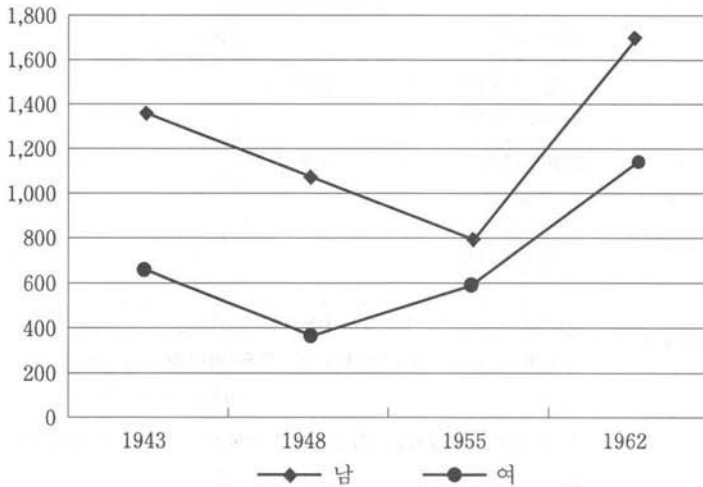
구성한 것이다. 또한 1943(2)는 소분류가 없기 때문에 1955년 이후의 분류기준과 비교 불가능한 1948년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 수치이다.¹⁰⁾ 또한 1943년 두 수치 모두 해방 후와 비교가능하도록 남한지역만을 계산한 것이다.

먼저 남한지역 사업체 종사자수를 남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3 참조). 여자종사자는 1955년에 1943년 수준을 회복한 뒤 계속하여 증가하지만, 남자종사자는 1955년까지 감소한 뒤 1962년이 되어야 1943년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 이는 여자종사자가 제조업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반면, 남자종사자는 전기/가스/수도 및 운수/보관/통신 부문을 제외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금융/부동산 부문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부표 4 참조). 한편, 남한지역 사업체 중 제조업 종사자수는 여자의 경우 1955년에 1943년 수준을 회복하여 계속 증가하고, 남자의 경우 1962년이 되어야 1943년 수준을 상회하게 된다는 점은 전 사업체 종사자수의 변화와 유사하지만, 남녀 모두 감소와 증가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그림 4 참조).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1948년에서 1955년으로의 여자의 증가는 경공업부문의 확대가 주도하였고, 같은 기간의 남자의 감소는 중화학공업부문의 축소가 주도하였다(부표 5 참조). 1955년에서 1962년

10) 다만 유의할 점은 1943(1)의 서비스부문은 같은 시기 분류인 사무소/상점 소분류 '기타 사무소'의 수치라는 것이다. 즉, 이 수치를 서비스부문으로 전부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4 남한지역 사업체 중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화(상시 5인 이상)

(단위: 100명)



자료: 부표 5 참조.

의 여자의 증가는 여전히 섬유부문을 중심으로 경공업부문이 주도하였지만, 같은 기간 남자의 증가는 섬유부문도 기여하였지만 중화학부문이 주도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경제재건기의 근대적 공업부문의 고용실태는 1930년대와는 달리 경공업부문 여자종사자의 고용기회가 확대하기 시작한 뒤 중공업부문 남자종사자의 고용기회도 확대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여자는 1960년 이후 그리고 남자는 1966년 이후 전체 취업자의 확대에 이어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IV. 검 증

1. 조사 및 집계기준

이상의 추론이 가능하려면 1930년 및 1940년 국세조사가 당시의 실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먼저 조사기준과 조사과정 그리고 집계과정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930년대에 가내공업의 제조호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1930년 국세조사에 비해 1940년 국세조사의 '調査精度'가 높아져 여자 공업 본업자수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허

표 3 국세조사 직업 및 소속산업에 관한 조사 및 집계 기준

		1930	1940
조사	실시월일	10월 1일	10월 1일
	직업분류 근거	일본 내각훈령 제3호 「직업분류」 (1930. 2. 27)	
	직업분류수 (소분류)	377(훈령기준 소분류)+92(조선 특 별 소분류)	439
	명칭	약칭 금지/상세 기입	누구에게나 알 수 있도록 상세 기입
	가족종사자 (手傳)	세대주 또는 타가족의 직업활동을 계속하여 돕는 경우(일시적인 것은 제외)	가업, 즉 세대주 또는 타가족의 직업활동을 계속하여 돕는 경우 (일시적인 것은 제외)
	휴업자	조사 중에 휴업자는 최근 직업 기 입	조사 중에 휴업자라도 종업하고 있는 사업소 기입
	재취업준비자	준비 중 직업 기입	
	부업(內職)	주요 직업활동은 없지만 때때로 일 하면 '부업'으로 기입(원칙적으로는 본업 병기하나 예외적으로 본업 삭 제)	
집계	併記했을 경우	수입 종류와 학생/생도→학생/생도 직업 종류와 학생/생도→직업(예: 야간학교)	
	재소자	재소자가 작업 종류를 기입한 경우 해당 직업	

자료: 朝鮮總督府, 「1930년 조선국세조사 종사원의 신고서 기입 주의사항」, 『官報』, 1930년 5월 17일; 朝鮮總督府, 「1940년 조선국세조사 종사원의 신고서 기입 주의사항」, 『官報』, 1940년 6월 20일; 朝鮮總督府, 「국세조사신고서 부록(기입시 주의할 점)」, 『國勢調査』, 1940년판; 朝鮮總督府, 「직업분류작성요지」, 『國勢調査』, 1930년판.

수열(1992: 264-5)의 평가이다. 그렇다면 1930년 국세조사는 1940년 국세조사에 비해 조사 정도가 떨어졌는가? 살펴본 결과 조사 정도가 떨어졌다는 근거는 없었다.

여기에서 직접 관련되는 두 해의 직업 및 소속산업에 관한 조사 및 집계기준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1930년 식민지 조선의 국세조사는 일본 국내 국세조사의 내용을 규정한 내각훈령의 규정에 따라 직업분류를 실시했으며, 공업화 정도가 낮았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훈령기준 377소분류에 더해 조선 특별 92

분류를 더하여 실시되었다. 이는 일본 국내 439분류를 상회하는 분류수이다. 직업 기입명칭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기입하도록 조사원에게 요구하였다. 이는 1930년 국세조사를 지휘하였던 임시국세조사 과장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를 통해서도 강조하였던 점이었다(河野節夫 1930: 7). 초기 공업화 시기였던 1930년대에 직업분류가 애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족종사자에 관한 조사기준도 두 해 모두 일시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있어 이 부분이 1940년 조사에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은 적다. 다만 1930년 국세조사에서 휴업자 또는 재취업준비자를 현직업자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부업자 또는 内職이 1940년 조사에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기준을 확인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한편, 집계과정에서 1930년 조사가 과대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야간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이 직업종류와 학생/생도를 병기한 경우 직업 있는 자로 분류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인 수입종류와 학생/생도를 병기한 경우 학생/생도로 분류하였기에 두 항목을 합쳐서 과대평가될 가능성은 적다. 마지막으로 1930년 조사에서 재소자가 작업종류를 기입한 경우 현직업자로 집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 국세조사가 1940년 조사에 비해 조사 정도가 떨어졌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일부 1940년 국세조사의 유업자에 관한 조사 및 집계과정에서 과소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직업별 무업자 약 130만 명 증가와 여자의 직업별 유업자 약 70만 명 감소 및 직업별 무업자 약 245만 명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조사된 일본의 경우에는 식민지 조선과 다른 진전된 공업화와 고도화된 산업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부문 유업자수는 물론 전체 유업자수도 감소하지 않는 등 식민지 조선과 명확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표 1 참조).

2. 부업자 및 ‘기타 업무를 갖는 자’

다음은 1930년 농수산업 및 공업부문에서 유업자로 집계되었던 부업자가 1930년대 공장제 확대의 결과, 직업을 가진 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집계에서 대규모로 제외되어 총유업자의 감소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점을 검증하려 할 경우 부업자수의 변화가 총유업자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대만 국세조사의 부업실태를 분석한 劉怡伶·齊藤修·谷口

표 4 조선과 대만의 부업형태 비교

(단위: 100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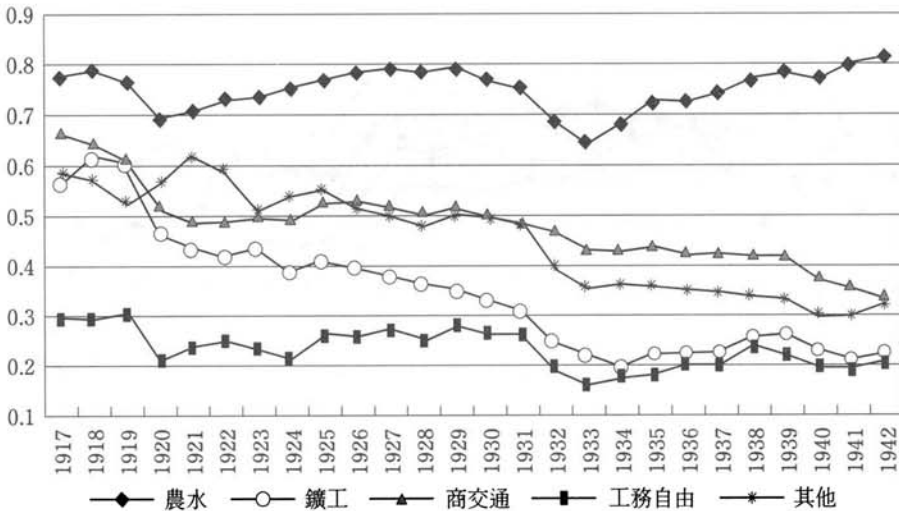
	조선		대만	
	남	여	남	여
총인구	107,430	102,956	23,533	22,392
유업자	64,223	33,234	13,715	4,186
본업자	57,018	28,554	13,715	4,186
부업자	7,205	4,680	1,383	1,366
본업 있는 부업자	7,189	4,283	1,367	309
(총인구비)	6.69	4.16	5.81	1.38
본업 없는 부업자	16	397	16	1,057
(총인구비)	0.01	0.39	0.07	4.72
무업자	43,207	69,722	9,818	18,207

주: 본문 참조.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1930); 劉怡伶·齊藤修·谷口忠義(1998).

忠義(1998)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주장은 대만의 경우 1905년, 1915년, 1920년, 1930년에 각각 ‘본업 없는 여자부업자’가 각각 26만 3,000명, 19만 9,000명, 22만 3,000명, 10만 5,000명 존재하였고, 이는 총유업자가 각각 58만 명, 67만 9,000명, 70만 9,000명, 41만 9,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유업자수 변화의 중요 변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는 어떠할까? 본업 있는 부업자 및 본업 없는 부업자가 분리되어 집계되어 있는 1930년 대만과 조선 두 지역 국세조사의 집계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업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대만의 총여자유업자 중 본업 없는 여자유업자의 비율은 25.26%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본업 없는 대만 남자와 한국 남자 및 여자의 비율은 매우 미약한 비중이었다. 이렇듯 대만의 본업 없는 여자유업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대만의 상업적 농업이 조선에 비해 발달되었고, 주요 가내공업이 거의 전업화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木村光彦 1981: 14).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본업 없는 여자유업자의 비율은 매우 미약한 비중이었다(劉怡伶·齊藤修·谷口忠義 1998: 147). 이상과 같이 한국의 부업자 중 대부분은 본업 있는 부업자였기 때문에 1940년 국세조사에서 1930년 농수산업 및 공업부문에서 유업자로 집계되었던 부업자가 공장제의 확대과정에서 직업을 대규모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총유업자의 감소로 나

그림 5 산업별 주업자 남녀비율의 추이(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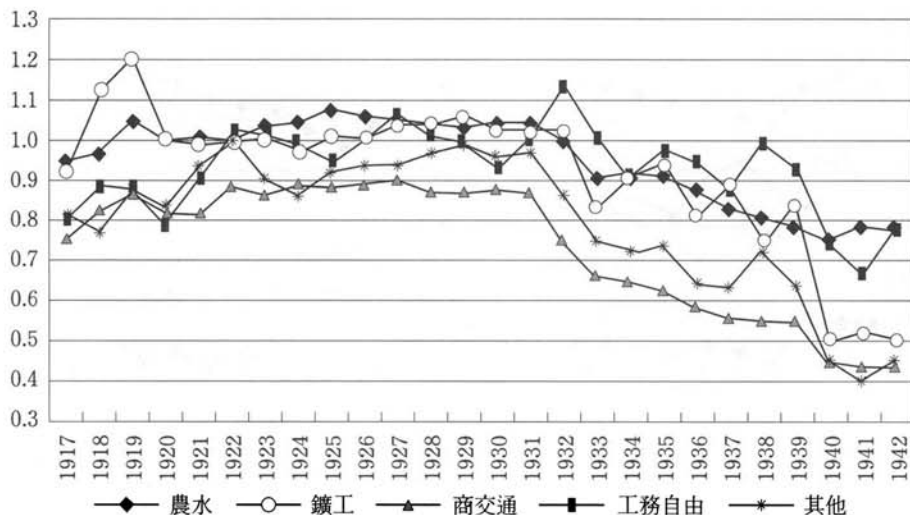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타나기는 힘들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하여 국세조사보다는 조사의 精度가 떨어지지만 시계열 비율변화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연보』(조선총독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연보』에서는 직업을 가계의 주된 소득자인 ‘주업자’와 가계의 부차적인 소득자인 ‘기타 업무를 갖는 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통계연보』에서의 총주업자 남자는 1930년 520만 명에서 1940년에 530만 명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고, 총주업자 여자는 1930년 380만 명에서 1940년에는 350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총 ‘기타 업무를 갖는’ 남자는 1930년 100만 명에서 1940년에는 56만 명으로 약 반 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총 ‘기타 업무를 갖는’ 여자는 1930년 100만 명에서 1940년에는 36만 명으로 대폭감소하고 있다. 『통계연보』의 ‘기타 업무를 갖는’ 자는 호 주인 주업자 이외의 가족이 일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 수치와 주업자 수치를 합산하면 총유업자수가 된다. 1930년부터 1940년에 걸쳐 산업별 주업자 남녀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대공황의 영향으로 1933년까지는 모든 산업에서 여자의 비율이 감소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는 각각의 산업에서 양상을 달리하였다(그림 5 참조). 농수산업의 여자비율은 경기회복 이후 증가하고 있고, 1940년 이후는 1930년을 상회하고 있다. 광공업 및 공무원업의 여자비율은 1938년까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이후는 감소하고 상업교

그림 6 산업별 기타 업무를 갖는 자 남녀비율의 추이(여/남)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통업 및 기타 산업에서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한편, 1930년 현재 총주업자 남자 및 여자의 각각 약 1/5과 1/4의 수치에 해당했던 각 ‘기타 업무를 갖는’ 자 중 여자비율은 1930년부터 1933년까지는 농수산업 이외에서 급감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1940년까지는 감소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이상의 사실로부터 호주 이외의 일을 하고 있던 가족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1930년대 공업화 과정에서 일을 그만둔 비율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고, 이것으로 1940년 여자유업자수가 감소한 부분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자료상황하에서 남아 있는 설명가능한 방법은 무업자의 증가원인과 가내공업 종사자의 감소원인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유업자 및 여자공업 유업자 감소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다.

3. 무업자 및 연령구조

무업자는 현역 군인, 무업수입자, 무업 기타(학생, 무업가족, 입원자, 구조 받는 자, 수감자, 무업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 및 무업가족이 1930년, 1940년 모두 총무업자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기에 이 두 부분의 변화에 주목하기로 한다(표 5 참조). 무업자의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한 부문은 소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부문 중 남자의 경우 35%로 다소 높더라 하더라도 전

표 5

무업자의 증가

(단위: 100명, %)

			1930	1940	증가수	증가기여율
학생	조선인	남	6,417	10,910	4,494	35.0
		여	1,329	3,943	2,614	10.8
		계	7,746	14,853	7,108	19.2
	일본인	남	438	636	198	51.8
		여	380	569	189	20.8
		계	818	1,205	387	30.0
무업가족	조선인	남	34,989	43,321	8,332	65.0
		여	65,713	87,209	21,496	89.2
		계	100,702	130,531	29,829	80.8
	일본인	남	569	754	184	48.2
		여	1,524	2,242	718	79.2
		계	2,093	2,996	903	70.0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체적으로는 남녀 모두 압도적으로 무업가족부문이었다. 박이택(2007)은 이 무업가족부문의 증가를 아동비중의 증가와 그에 따른 출산, 보육 등의 가사노동에 전업해야 하는 여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도 이에 동의 하며 직업별 연령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1930년과 비교하여 1940년 농수산업부문 남자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취학 또는 부양대상인 14세 이하 연령층에서 급격하게 감소했고 10대 후반, 20대 전반, 30대, 60대 후반 이상 연령층에서 감소한 반면, 20대 후반, 40대 전반에서 60대 전반까지 오히려 증가하였다(표 6 참조). 이에 대해 농수산업부문 여자는 전체적으로 절대 수는 전 연령층에 걸쳐 농수산업부문 남자와 비슷한 규모로 감소한 가운데 출산 및 양육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 및 후반 연령층의 감소가 두드러졌다.¹¹⁾ 공업

11) 당시의 조혼풍습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취급되어 다수 보도되고 있으며(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류승현 1998; 김경일 2007)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류승현(1998)은 『調査月報』(朝鮮總督府)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조선인 여자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연령별 비율을 제시(1912-1936년)하고 있는데, 1936년의 경우 14세 이하 8.4%, 15-19세 72.6%, 20-24세 14.0%, 25-29세 2.9%였다. 여기에서 당시에 여자는 10대 후반에 대부분 결혼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각 연령층의 인구증감

(단위: 100명, %)

		농수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무/자유		가사업		기타		무업			계	
연령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1930	1940	기여율	1930	1940
남	0-14	3,673	-2,070	4	39	98	21	86	34	8	15	6	32	138	-2	73	11	38,616	10,680	81.7	42,702	8,760
	15-19	7,600	-1,471	30	229	348	426	413	169	112	169	61	175	76	28	320	148	1,941	1,038	7.9	10,903	911
	20-24	6,768	-939	49	253	457	368	426	116	206	87	435	-36	23	11	376	194	418	183	1.4	9,159	237
	25-29	5,378	120	49	254	431	341	401	206	188	82	311	134	10	10	386	263	183	127	1.0	7,336	1,538
	30-34	5,498	-632	53	187	422	157	435	114	167	34	258	117	9	4	445	166	141	44	0.3	7,429	190
	35-39	4,809	-581	48	127	368	45	409	57	130	11	176	66	7	3	430	100	114	24	0.2	6,492	-148
	40-44	4,316	125	40	113	301	40	373	60	97	9	132	31	6	4	373	162	103	33	0.2	5,740	577
	45-49	3,704	175	28	75	227	8	305	37	68	-0	86	16	5	5	291	160	103	33	0.3	4,816	510
	50-54	3,104	343	17	48	154	8	230	42	39	4	59	10	4	6	210	142	117	65	0.5	3,934	668
	55-59	2,500	270	9	26	99	-6	164	27	20	2	42	-1	4	5	138	98	160	112	0.9	3,135	532
	60-64	1,847	160	4	11	63	-13	106	9	9	0	31	-7	4	3	85	51	243	168	1.3	2,392	382
	65-69	1,243	-39	1	4	40	-20	61	1	3	-0	21	-9	2	2	43	24	321	202	1.5	1,735	165
	70 이상	995	-163	1	1	34	-24	42	-4	2	-1	19	-8	2	2	25	11	745	360	2.8	1,864	174
	합계	51,435	-4,701	334	1,367	3,041	1,351	3,451	868	1,049	413	1,636	520	290	80	3,194	1,531	43,206	13,069	100.0	107,637	14,496
여	0-14	1,583	-838	0	6	317	-203	58	-17	2	8	4	6	480	229	11	-2	38,298	9,488	38.6	40,754	8,678
	15-19	3,670	-881	1	10	497	-267	189	64	14	21	26	48	146	119	47	-8	5,579	2,270	9.2	10,168	1,374
	20-24	3,712	-893	1	6	373	-322	223	-26	5	3	33	12	57	27	69	-12	4,303	2,054	8.4	8,774	849
	25-29	3,155	-346	1	7	291	-253	235	-52	1	2	18	9	36	19	78	-3	3,251	2,511	10.2	7,065	1,894
	30-34	3,242	-666	1	7	287	-254	290	-88	1	0	16	4	32	8	98	-10	3,032	1,600	6.5	6,999	601
	35-39	2,739	-542	1	6	258	-231	287	-90	1	0	15	-1	31	2	95	-8	2,543	1,107	4.5	5,969	242
	40-44	2,393	-166	1	6	225	-202	261	-66	1	0	16	-5	29	5	81	9	2,212	1,293	5.3	5,220	876
	45-49	1,981	-154	1	4	186	-169	216	-57	1	0	16	-6	27	9	60	15	1,907	1,114	4.5	4,395	757
	50-54	1,523	-50	1	2	144	-133	167	-47	0	0	14	-5	25	9	45	13	1,740	1,057	4.3	3,658	846
	55-59	1,113	-106	0	1	105	-98	113	-40	0	0	11	-5	21	7	33	6	1,677	821	3.3	3,072	585
	60-64	699	-119	0	0	68	-65	72	-32	0	0	9	-5	16	3	24	2	1,631	576	2.3	2,520	361
	65-69	389	-119	0	0	41	-39	38	-18	0	-0	7	-4	10	2	16	-2	1,481	289	1.2	1,981	109
	70 이상	230	-75	0	0	25	-24	22	-12	0	-0	6	-3	8	1	10	1	2,070	408	1.7	2,371	297
	합계	26,428	-4,955	8	56	2,817	-2,259	2,170	-480	26	34	190	46	919	439	667	1	69,722	24,586	100.0	102,946	17,469

주: 1940년 항목의 수치는 1940년 수치에서 30년 수치를 뺀 값.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표 7 1930-1940년 생산가능 코호트 연령계층별 인구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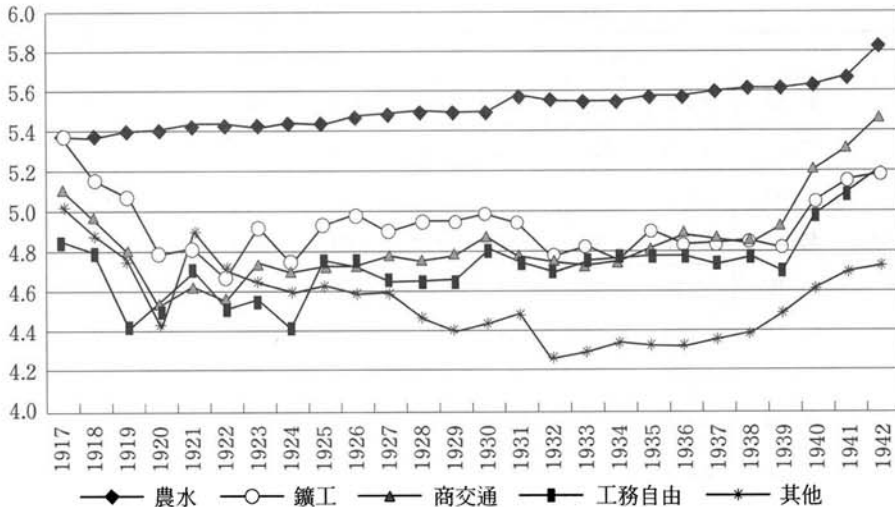
(단위: 100명, %)

		농수	광업	공업	상업	교통업	공/자	가사업	기타	무업
남	25-29	2,102	272	424	194	158	384	-56	329	-1,632
	30-34	1,902	191	122	123	-5	-60	-11	235	-233
	35-39	1,150	127	-17	65	-48	-69	1	144	-44
	40-44	1,057	99	-81	-2	-62	-95	2	90	-5
	45-49	-931	56	-134	-67	-62	-74	4	21	22
	50-54	-869	26	-139	-101	-54	-63	4	-21	79
	55-59	-934	7	-133	-114	-46	-45	3	-55	169
여	25-29	-860	7	-459	-6	-11	1	-91	29	183
	30-34	1,135	7	-340	-21	-4	-13	-17	20	329
	35-39	-958	6	-263	-38	-0	-4	-3	8	398
	40-44	1,015	6	-263	-95	-0	-4	3	-7	473
	45-49	-912	4	-241	-127	-0	-5	5	-19	479
	50-54	-920	2	-214	-142	-0	-8	5	-24	584
	55-59	-974	0	-180	-144	-0	-9	1	-22	591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남자는 전체적으로는 44%(13만 5,000명)나 증가하지만 생산가능연령을 초과하는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감소하였다. 한편, 공업부문 여자는 평균 80%(약 22만 6,000명)가 감소하는데 보조노동자 또는 단기노동자로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20세 미만의 연령층은 평균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상업부문 여자도 10대 후반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남자무업은 총증가분(약 130만 명)의 약 80%(106만 8,000명)가 14세 이하 연령층으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여자무업의 경우 총증가분(약 246만 명)의 약 39%(약 94만 9,000명)가 14세 이하 연령층이었고, 출산 및 양육 가능연령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 및 후반 연령층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생산가능연령층의 연령구조 변화는 어떠했을까? 각 산업의 각 연령층별 비율변화를 남자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수산업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서는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취업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각 산업의 연령코호드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수산업 남녀와 공업 및 상업 여자의 취업자수는

그림 7 산업별 1호당 가족수의 추이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지만, 공업 및 상업 25세 이상 34세 미만 연령층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표 7 참조). 즉, 비농수산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감소했지만 남자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까지의 연령층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령구조 변화를 무업자의 변화(표 5 참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남자무업 14세 이하 연령층 증가분의 약 42.1%(44만 9,000명) 및 여자무업 증가분 14세 이하 연령층 증가분의 약 27.5%(26만 1,000명)를 취학자의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여자무업자 증가가 전 연령에 걸쳐 발생했다는 사실은 남녀 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정 정도의 취학자 증가 및 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라 출산 및 양육 가능연령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총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호당 가족수가 1930년대 전반까지는 감소경향이었던 것이 그 이후 1942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그림 7 참조).

V. 맺 음 말

이상에서 식민지기 조선의 본격적인 공업화 시기라고 잘 알려져 있는 1930년

대의 유업자수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세조사에서 예상과는 달리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엄격해진 조사기준의 변화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유업률 감소를 주도한 19세 미만의 남자무업자 증가 및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여자무업자 증가의 원인을 각각 취학률이 상승하고 공장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업자로부터 탈락하여 증가하였고, 출산 및 양육부담이 증가하고 공장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흡수되지 못하여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1930년대 유업률 감소를 부정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기와 1950년대 경제재건기의 고용기회에 관한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민지 공업화에 의해 확대된 공업부문이 생산연령 남성에게 고용기회를 증가시킨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성에게는 고용기회를 축소시킴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 전체의 고용기회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해방 후 경제재건기의 공업부문의 확대는 식민지 공업화기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전체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경공업부문 여자종사자의 고용기회가 증가한 뒤 중공업부문 남자종사자의 고용기회 증가가 그 뒤를 이었고 이러한 추세가 전체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투고일: 2010. 1. 6 수정원고 접수일: 2010. 11. 26 게재확정일: 2010. 12. 6)

참 고 문 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한국통계조사현황』, 경제기획원.
 남조선과도정부노동부통계실, 『남조선노동통계조사결과보고』, 1948년판.
 內閣統計局, 『國勢調査』, 1930, 1940년판.
 _____, 『勞動統計實地調査報告』, 1924년판.
 _____, 『工場, 鑛山, 運輸事業場, 事務所商店數及其ノ所屬勞務者, 技術者數』, 1941년판.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55-1957』.
 _____, 『사업장노동실태조사보고서』.
 朝鮮總督府, 『簡易國勢調査』, 1925년판.
 _____, 『國勢調査』, 1930, 1935, 1940년판.

_____, 『人口調査結果報告』, 1944년판.

_____, 『統計年報』, 1911-1942년판.

_____,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1943년판.

_____, 『1930년 조선국세조사 종사원의 신고서 기입 주의사항』, 『官報』, 1930년 5월 17일.

_____, 『1940년 조선국세조사 종사원의 신고서 기입 주의사항』, 『官報』, 1940년 6월 20일.

總務省統計局統計研修所, 『第19章 勞働・賃金』, 『日本の長期統計系列』(<http://www.stat.go.jp/data/chouki/index.htm>).

河野節夫(1930), 『昭和五年國勢調査施行に就하여』, 『朝鮮』, 14-3, 2-8.

이대근 외(1990),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력(I)—노동통계의 정비 해설편—』,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한국통계청, 『簡易人口調査』, 1949년판.

_____, 『總人口調査』, 1955년판.

_____,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0, 1966, 1970, 1975, 1980년판.

_____, KOSIS(<http://kosis.nso.go.kr/>).

권태환·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김경일(2007), 『일제하 조혼문제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41, 363-95.

김낙년(2003),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

_____(2008), 『일제시기 우리나라 GDP의 도별 분할』, 『경제사학』 45, 3-43.

_____(2010), 『식민지기 조선의 유업자: 호구조사와 국세조사』, 『경제사학』 48, 125-66.

김낙년 편(2006), 『한국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종한·박섭·박영구(2006), 『한국전쟁과 부산의 인구 및 노동자 상태 변화』, 『한국지역사회학회』 14-3, 23-51.

류승현(1998), 『구한말-일제하 여성조혼의 실태와 조혼폐지사회운동』, 『성신사학』 16, 1-79.

박기주(2006a), 『식민지 조선의 공장생산액과 노동생산성 증가』, 『경제사학』 40, 83-117.

_____(2006b), 『광업 제조업』,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

- 부, 71-106.
- 박 섭(2001), 「농업성장, 1912-1960」,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학교출판부, 33-76.
- 박이택(2007), 「식민지 조선의 인구와 노동력」, 낙성대경제연구소 발표논문.
- 장지용(1999), 「1930년대 조선의 가내공업」,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주익종(2006), 「민간소비지출의 추계」,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부, 193-213.
- 차명수(2006), 「경제성장, 소득분배, 구조변화」,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성장』, 서울대학교출판부, 299-341.
- 최성진(2006), 「식민지기 신장변화와 생활수준」, 『경제사학』 40, 57-82.
- 허수열(1992), 「일제하 조선의 산업구조: 고용기준 분석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36, 255-78.
- _____(1993), 「日帝下 朝鮮의 失業率과 失業者數 推計」, 『경제사학』 17, 1-27.
- _____(2009), 「전시기 조선의 공장공업의 변화」, 2009 경제사학회 연말학술대회 발표문.
- 溝口敏行(1996), 「韓國(戰前『朝鮮』を含む)長期經濟統計の作成方針」, 一橋大學經濟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D96-3.
- _____(1999), 「Korea長期經濟統計データベースの作成」, 一橋大學經濟研究所 Discussion Paper No. D99-5.
- 溝口敏行・梅村又次編(1988), 『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東洋經濟新報社.
- 金哲(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 劉怡伶・齊藤修・谷口忠義(1998), 「戰前台變における有業人口の新推計」, 『經濟研究』 49-2, 145-53.
- 宣在源・石井晋(1997), 「1920・30年代日本と朝鮮の人口移動と工業勞働者」, 『經濟學論集』 63-3, 21-38.
- 一橋大學經濟研究所編(1961), 『解説 日本經濟統計—特に戦後の分析のために—』, 岩波書店.
- Durand, John D.(1948), *Th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1890-1960*,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Goldin, Claudia(1995), "The U-Shaped Female Labor Force Function in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History," in T. Paul Schultz, ed., *Investment in Women's Human Capita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1-90.

Kim, Duol and Ki-Joo Park(2008), "Colonialism and Industrialisation: Factory Labour Productivity of Colonial Korea, 1913-37,"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Vol. 48, No. 1, 26-46.

부표 1 1930년 및 1940년 국세조사 직업별 중분류 항목 비교

전산업			공업		
	1930	1940		1930	1940
경영/사무 /기술자		경영자	방직/피복 /장신구	방직공업	방직품제조
		사무자		피복장신구제품제조	의복장신구제품제조
		농림수산기술자	금속/기계	금속·기계기구·조선 운반용구제조	제련
		광공기술자		정교공업	제도·現圖
		교통통신기술자			금속재료제조가공
		의사·약제사			기계기구제작
		기상기술자·기상수			기계기구마무리·조립 ·수선
		이과학연구원		요업	요업토석류 가공
			요업	요업토석가공	요업토석류 가공
농림수산	농경	농림축산	화학	화학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축산	수산	목제품	나무/대나무/풀/덩굴 류 제조	나무/대나무/풀/덩굴 류 제조
	잡업		종이/인쇄	종이공업·인쇄	인쇄·종이제품제조
	임업		식료/기호	제염	음식료품·기호품제조
	어업			음식료품·기호품제조	
광업	채탄	광물·토석 등 채취	토목건축	토목건축	토목건축
	채광		기타	피혁/뼈/깃털류 제조	피혁/뼈/깃털류 제조
	석유광업			가스·전기·수도업	기타 제품제조
	토석채취			기타 공업적직업	전기관계
공업	공업	공업			塗裝
상업 서비스	상업적 직업	상업적 작업자			실험·시험·검사
	금융보험	접객업			
	접객업				
교통/통신	운수	운수·운반			
	통신	통신			
공무/자유	관리·公吏고용원	의료·이용			
	법무	공무·자유직업			
	교육	기타 직업자			
	종교가				
	의료				
	서기적 직업				
	기자·저술가·예술가 ·遊藝가				
	기타 자유업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			
기타	기타 유업자	기타 작업자			
	수입에 의한 자				

자료: 朝鮮總督府, 『國勢調査』, 1930년판 및 1940년판.

부표 2

남한지역 총인구 및 취업인구 비율변화

(단위: 천 명, %)

			1925	1930	1940	1944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A	총인구(북한지역 포함)	남	9,726	10,399	11,839	12,521							
		여	9,204	10,039	11,708	12,599							
		계	19,020	20,438	23,547	25,120							
B	총인구	남	6,909	7,312	8,054	8,427	10,201	10,753	12,544	14,684	15,216	17,461	18,767
		여	6,583	7,005	8,035	8,613	9,988	10,749	12,445	14,475	15,666	17,245	18,669
		계	13,492	14,317	16,089	17,040	20,189	21,502	24,989	29,160	30,882	34,707	37,436
C	유업자	남		4,374	4,288	4,414							
		여		2,082	1,560	2,461							
		계		6,457	5,849	6,875							
D	무업자	남		2,937	3,766	4,013							
		여		4,922	6,475	6,153							
		계		7,860	10,241	10,166							
E	실업자	계		253	52								
F	경제활동인구	남						4,928	5,387	5,975	6,753	8,176	8,622
		여						3,242	2,156	2,680	3,625	5,175	4,973
		계		6,712	5,282			8,170	7,543	8,506	10,378	13,351	13,595
G	취업자	남						4,833	5,006	5,426	6,578	7,702	8,044
		여						3,219	2,022	2,538	3,575	4,980	4,638
		계						8,053	7,028	7,963	10,153	12,682	12,682
H	실업자	남						95	381	549	175	474	578
		여						23	134	142	50	194	335
		계						118	515	691	225	669	913
	비경제활동인구	남						1,506	1,938	1,628	1,957	2,331	3,281
		여						3,513	5,884	5,826	5,997	6,144	7,972
		계						5,019	7,823	7,454	7,954	8,476	11,253
I	총인구 대비 취업인구 비율	남	C/B	59.8	53.2	52.4	F/B	45.8	42.9	40.7	44.4	46.8	45.9
		여		29.7	19.4	28.6		30.2	17.3	18.5	23.1	30.0	26.6
		계		45.1	36.4	40.3		38.0	30.2	29.2	33.6	38.5	36.3
	실업률	남	E/(H+E)				H/F	1.9	7.1	9.2	2.6	5.8	6.7
		여						0.7	6.2	5.3	1.4	3.8	6.7
		계		3.8	0.9			1.4	6.8	8.1	2.2	5.0	6.7

주: 1930년 유/무업자 계: 총인구보다 417,796명 적음.

1940년 유/무업자 계: 총인구보다 444,279명 많음.

1966년 경제활동인구수치: 취업자수와 실업자수의 합계보다 148,850명 적음.

1944년 유업자수=총인구-무업자수.

1955년 총인구는 외국인 제외.

1955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 전수조사.

1955년 비경제활동인구: 무업자(1,661,827명)+학생/생도+노동불능자+가사.

1960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3세 이상, 20% 표본조사.

1966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 10% 표본조사.

1970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 10% 표본조사.

1975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 5% 표본조사.

1980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4세 이상, 15% 표본조사.

1930/1940년 실업자수: 허수열(1993) 추계의 남한지역 합계. 1930년은 1932년 수치.

자료: 朝鮮總督府, 「簡易國勢調査」, 1925년판; 「國勢調査」, 1930, 1935, 1940년판; 「人口調査結果報告」, 1944년판; 한국통계청, 「簡易人口調査」, 1949년판; 「總人口調査」, 1955년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0, 1966, 1970, 1975, 1980년판; 허수열(1993).

부표 3

사업체조사 통계현황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분류	자료명	작성기관	비고
1	1922. 7	상시 10인 이상	공/광, 토건, 농목, 수산, 통신/운수, 잡업	會社及工場に於ける労働者の調査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민족구분 없음
2	1931. 6	상시 10인 이상	공업(전기/가스 포함), 광업	工場及鑛山に於ける労働状況調査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3	1941-1943	상시 5인 이상	공업, 광업, 운수, 사무소/상점	朝鮮勞動技術統計調査結果報告	조선총독부	
4	1946. 11	상시 5인 이상	공업(전기/가스/수도, 건설 포함)	南朝鮮産業勞務力及賃金調査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 통계서	
5	1948. 1	상시 5인 이상	공업, 광업, 운수, 사무소/상점	南朝鮮勞動統計調査結果報告	남조선과도정부 노동부 통계실	
6	1955	상시 5인 이상	농, 광, 제조, 전기/가스/수도/위생, 건설, 상/금융/부동산, 운수/보관/통신, 서비스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노동국	
7	1962. 8	상시 5인 이상	농, 광, 제조, 전기/가스/수도/위생, 건설, 상/금융/부동산, 운수/보관/통신, 서비스	事業場勞動實態調査報告書	보건사회부 노동국	

부표 4 남한지역 사업체 종사자수의 변화(상시 5인 이상)

(단위: 명)

		1943(1)	1943(2)	1948	1955	1962
농/축/임/어업	남	413			13,094	27,536
	여	40			770	1,022
광업	남	62,890	62,186	21,995	20,793	36,238
	여	5,783	5,677	1,000	1,593	2,237
제조업	남	136,606	135,660	105,689	78,539	169,576
	여	63,835	63,666	36,156	57,987	113,781
건설업	남	51,757	51,757	11,231	7,204	17,013
	여	847	847	384	984	888
전기/가스/수도	남	2,953	2,953	3,501	8,903	8,721
	여	45	45	86	701	329
상/금융/부동산	남	5,654	15,188	14,850	10,426	23,214
	여	1,742	2,347	2,234	3,179	5,123
운수/보관/통신	남	32,736	32,375	25,496	32,262	44,116
	여	1,676	1,620	408	2,658	7,205
서비스	남	7,110			3,444	72,375
	여	234			1,938	25,442
계	남	300,119	300,119	182,762	174,665	398,789
	여	74,202	74,202	40,268	69,810	156,027

주: (1)은 소분류 재구성, (2)는 중분류 재구성.
 자료: 부표 3 참조.

부표 5 남한지역 사업체 중 제조업 종사자수의 변화(상시 5인 이상)

(단위: 명)

		1943(1)	1943(2)	1948	1955	1962
음식료/담배	남	15,536	15,536	17,005	19,520	22,820
	여	4,340	4,340	2,620	8,441	10,182
섬유/의복/가죽	남	22,744	19,638	13,307	12,519	29,907
	여	42,628	41,605	23,257	38,741	74,881
제재/나무제품/가구	남	13,762	13,762	10,317	3,765	8,997
	여	842	842	288	529	1,402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남	10,384	6,846	5,738	6,021	15,724
	여	1,638	525	498	1,055	3,892
화학/석탄/고무제품	남	12,037	15,525	18,665	14,471	27,750
	여	6,548	7,466	6,877	5,945	14,336
비금속광물제품	남	18,387	18,387	7,815	5,924	13,788
	여	2,237	2,237	750	1,483	2,992
제1차금속	남	11,785	11,785	10,614	2,077	10,607
	여	851	851	328	137	716
금속제품/기계/장비	남	26,566	26,566	18,701	12,836	35,839
	여	983	983	579	537	3,486
기타 제품	남	4,459	7,615	3,527	1,406	4,144
	여	3,599	4,817	959	1,119	1,894
계	남	135,660	135,660	105,689	78,539	169,576
	여	63,666	63,666	36,156	57,987	113,781

주: (1)은 소분류 재구성, (2)는 중분류 재구성.
 자료: 부표 3 참조.

[Abstract]

Employment Ratio's Reduction during Colonial Korea's Industrialization:
Verification of Census in 1930 and 1940 with Comparing to 1950s

Jae Won Sun*

It has been established by recent studies that the amount of production increased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of colonial Korea in the 1930s. The outcomes of these studies led to the view that the colonial industrialization should be evaluated by analyzing how it was correlated to the assent composition, income, consumption, and statur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mployment opportunity as an important additional standard of evaluation. Previous studies concerning employment in the 1930s do not accept the results from the censuses that exhibit a decline in the overall employment during the 1930s. This rejection i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re were errors in census enumerations and aggregations, and that survey methods changed over time. This paper suggests there is no solid foundation to deny the reliability of the censuses, although the reason for the decline in employment during the 1930s cannot be determined. In the discussions of colonial industrialization in Korea, therefore, the census results showing diminished employment should be accepted. This paper also compares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1930s to the reconstruction in the 1950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y.

Keywords: Colonial Korea's industrialization, census, employment ratio, employment opportunity, 1930s, 1950s

JEL Classification: N3, J1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Studies, Pyongtaek University, E-mail: sun@ptu.ac.kr